

爲美港건설공사

施 · 工 · 事 · 例

颱風내습등으로 作業日數 月10余日

# 裝備 · 人員 우선確保 進入路 등 先決

김 용 하 <(株) 瑞海 토목부장 · 爲美港現場사무소장>

## ■ 현장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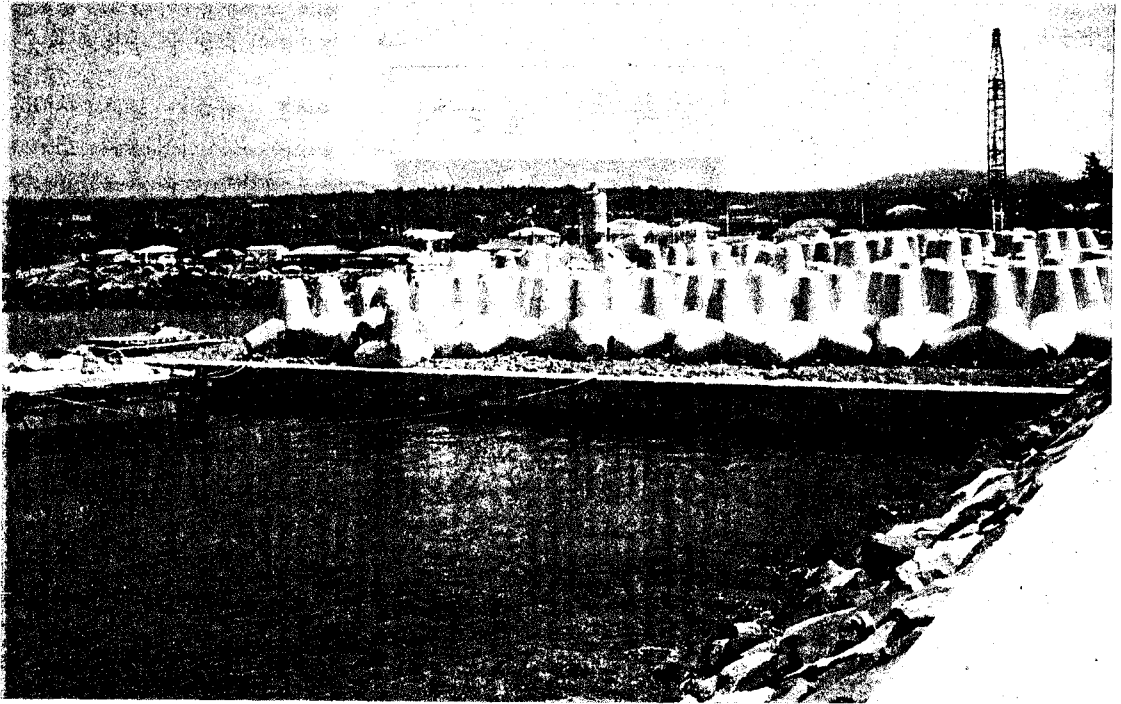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위미항 건설공사 현장은 우리나라 최남단 제1종 어항으로서 관광도시 서귀포를 중심으로 약 20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방폭포, 천지연 및 천제연폭포 등 천연적인 자연경관이 빼어나 국내제일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는 서귀포시와 인접해 있다.

## ■ 개발연혁

본 항은 1972년 제2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1979년 제주도에서 개발 착수하여 시공하다가 1985년 수산청 관할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착수하여 금년 제4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 ■ 제주의 기상조건

제주의 남쪽 지방 기상조건은 우천시는 전후 3~4일간 파고가



일어 수중작업이 불가능하고 남동, 남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4월경부터는 제주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마누'현상과 4월 26일부터 4월 30일쯤 오는 고사리 장마를 비롯해서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 그리고 7월 15일부터 9월말까지는 태풍내습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작업일수는 월 10여일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반면 북쪽지역인 제주시 북군은 기상조건이 남쪽지방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남쪽지방은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에서 3월말까지는 월 20여일 작업이 가능하나 모든 공사가 3월에서 4월경에 발주됨으로 이곳 어항공사 종사자들은 주어진 자연기상조건과 싸우며 공사를 수행하는 사실은 발주청과 지방관서, 지역주민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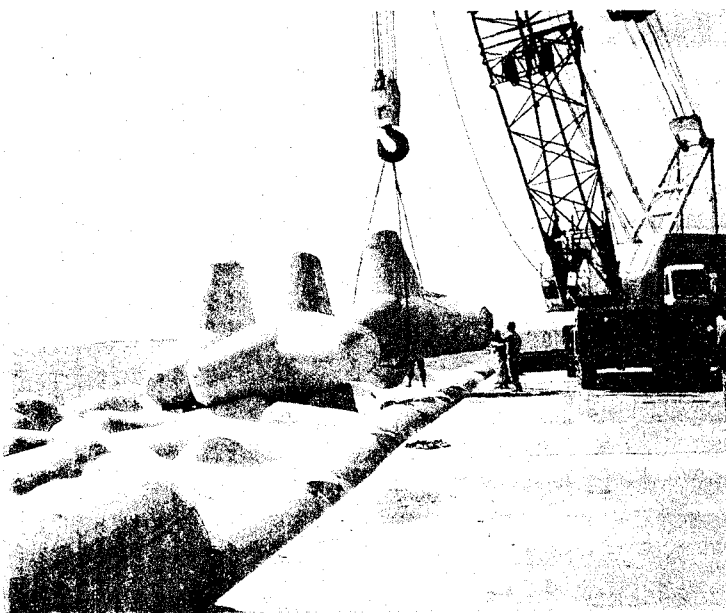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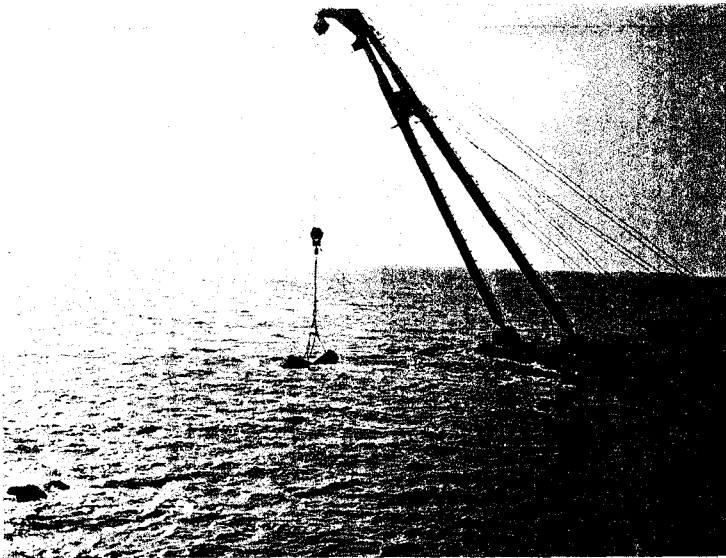
연도별 제주지방 태풍내습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시공사례

본 항은 198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명	내 습 연 월 일	피 해 지 역
카 멘	1960. 8. 22. ~ 8. 24.	호남, 제주, 서해동부
노 라	1962. 8. 12. ~ 8. 14.	중부, 호남, 제주
헬 렌	1964. 8. 1. ~ 8. 3.	제주, 호남, 중부, 서해안
폴 리	1968. 8. 15. ~ 8. 17.	제주, 영·호남.
빌 리	1970. 8. 30. ~ 8. 31.	제주, 호남, 서해
리 타	1972. 7. 25. ~ 7. 26.	영·호남, 제주
카 멘	1978. 8. 16. ~ 8. 17.	제주, 남쪽지방
어 빙	1979. 8. 16. ~ 8. 17.	제주, 경북, 호남
주 디	1979. 8. 24. ~ 8. 25.	제주, 서해 동해안
홀 리	1984. 8. 20. ~ 8. 21.	제주, 전남, 부산
할	1985. 6. 27.	제주
베 라	1986. 8. 28.	제주
애 비	1986. 9. 21.	제주
셀 마	1987. 7. 15.	제주
다이 나	1987. 8. 30.	제주

※1959년 이후 제주지역 15회 통과



로 개발착수되었으나 제2차공사 시행도중 두 차례에 걸친(1987년 7월 15일 썰마, 1987년 8월 30일 다이나) 태풍내습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간 악조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며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에 힘쓰셨던 현장 종사자 및 현지주재하셨던

수산청 감독관, 끝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현실로 나타난 피해상황을 보는 모습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장의 폐허를 보는 모습 못지 않는 상황에 일순간 좌절감에 빠졌던 일도 있었다.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제3차 공사는 입지적 여건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발주 예정일 2개월전부터 장비 및 인원을 우선 확보하여 현장에 도착시켰고 현장에 B.P(40m/hr)를 설치하고 사석 및 조골재를 선 확보하여 착공과 동시에 장비와 인원 골재를 투입시켜 제3차 공사는 태풍기전에 완료하였으며, 제4차 공사는 총 연장 80m 중 57m 지점에 가선단부를 6월 26일에 설치 완료하여 태풍내습기간인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장비정비 및 자재확보를 하여 하반기 공사를 준비중에 있다.

본 항이 입지적 악조건중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5월부터는 수중작업일수가 월 10여일로 감소하며, 아직 어항이 개발착수단계라 공사작업선(바지, 예인선, 이우선) 등이 기상변화에 대피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웬만한 날씨에도 10여km 이상 떨어진 서귀포항으로 대피해야 되는 실정인바 공정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 ■ 맺음말

어항공사는 주로 도시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본인의 소견으로는

- ①진입로의 문제(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타결)
- ②대형장비선 확보
- ③석산 선 개발 착수

등의 문제집만 해결된다면 어떤 기상조건하에서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재해예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는 바이다.

그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발주청과 어항관계종사자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